|  |  |
| --- | --- |
| 과목명 | 강화학습 (11-2) |
| 이름 | 이덕수 |
| 학번 | 20161600 |

이름과 학번을 적고, 답변을 적어주세요.

실습: 수업 내용을 자유롭게 요약하세요(A4 1 page 분량, 넘어도 상관없음)

- Open AI 는 GPT-3 를 공개함 GPT-2 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모델의 규모가 상상이상으로 커지게됨 이러한 규모의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더욱 고성능의 장비가 필요해졌으며 대표적으로 NVIDIA 의 Tesla V100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였음 이정도 규모의 훈련은 딱 1번만 진행하여도 140억원 정도가 들것이라고 보도 되었음(상당한 규모의 금액이 필요한 학문)

그러나 크고 복잡한 모델일수록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오버피팅 이란 모델을 만들 때 학습 데이터를 늘렸는데도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를 오버피팅 이라고 함 여기서 오버 피팅이란

예시로 기출문제집을 풀었으나 막상 기출문제집과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맞출 확률은 낮아지게됨 보통 모델을 만들떄 오버피팅이 일어나면 정확도만 훈련은 중단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 경우의수를 늘려줌과 동시에 일반 상황에서 모델이 대응할수 있는지를 확인함

그리하여 지금 까지 AI 모델은 특정 과업만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이러한 일을 대체로 잘해내는 경향이었으나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사람이 직접 지정해주어야 했었음

하지만 맥락 정보 학습에서는 AI가 주어진 질문과 약간의 정보만으로 어떤일을 해야할지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함 이로써 혹자는 GPT-3를

범용 인공지능(강인공지능)에 가까워졌다고 말하기도 함 물론 성능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사용목적을 변경하려고 추가적인 데이터세트 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모델을 그즉시 바로 사용할수 있기 때문임

결론적으로 GPT-3 는 처음 보여주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고

특별히 훈련하지 않아도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으면 문제를 해결함

또한 입력과 출력의 방식이 자유롭기에 이는 범용 인공지능으로 불리고 있음